



TEREX

TEREX | O&K TEREX | CMI TEREX | AMERICAN TEREX | REEDRILL
TEREX | BENDINI TEREX | PEGSON Genie POWERSCHEN

신뢰의 **헤인**과 세계적인 명성의 **TEREX**가 건설기계 시장의 새 변화를 몰고옵니다!



취/급/품/목

모바일 크라셔 · 스크린 · 고소 작업대 · Rock Drills · 광산용 Front Shovel / Backhoe · 콘크리트 패이버
크레인(크롤러크레인, 트럭크레인, RT크레인, 텔레스코픽트럭크레인, 텔레스코픽붐트럭크레인)

구/매/상/담

(주)헤인 장비사업본부 최용진 과장 TEL 02)3498-4607 / H.P 010-4243-5286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문의전화 (02) 3498-4500
 천안고객지원센터 041) 559-1500 평택물류 031) 667-2066/9 양산물류 055) 385-9481/3 남부사무소 031) 667-2062/3
 서울/경기지사 02) 2634-4800 인천사무소 032) 761-0564/6 북부사무소 031) 826-0966/8 포항사무소 054) 262-7551/2
 영남지사 051) 955-1200 대구사무소 053) 521-8072/4 진주사무소 055) 852-8811
 중부/호남지사 063) 245-1777/8 광주사무소 062) 945-5811 대전사무소 042) 531-6518/9 동부지사 033) 522-5211
 제천사무소 043) 643-3307/644-3307

헤인

2008;春 www.haein.com




바람결에 생명 에너지를 가득 품고 봄이 왔습니다.
기나긴 겨울, 추운 바람을 이겨내고 새 생명들이 봄을 노래합니다.
산과 들에 피어나는 진달래와 개나리, 푸르른 새싹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작은 새싹 하나가 싹을 틔우기 위해 한 겨울을 참고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작은 새싹이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노력이 큰 결실로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요.

봄, 생명을 노래하다

행복  **02** 프롤로그 | **04** Theme Essay | **06** Theme Space

교감  **08** Haein Holic1 | **12** Haein Holic2 | **16** 총력! 영업현장1 | **19** 총력! 영업현장2

22 정보 D.I.Y | **24** New Face

감성  **26** 재테크 레슨 | **28** 헤인 들여다보기 | **30** 웰빙헬스테크

CONTENTS

2008년 봄호(통권 258호) | 2008년 3월 28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기획 및 디자인 (주)헤인 사보편집실 (02-3498-4634) | 편집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친구도 애인도 NO! 나는 나만 믿는다

흔히 사람들은 '불신'이 현대사회에서 탄생한 새로운 산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불신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해온 감정일지 모른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나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회, 아름답고 빛으로 반짝거리는 그런 신뢰의 시대는 이미 사라진 것일까?

불신, 인간의 본성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자.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내용은 이렇다. 하프를 잘 연주하던 오르페우스가 세상을 떠난 사랑스런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살리려고 지하세계로 간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구출해 나온다. 하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데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지하세계 입구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고 만다. 결국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다시 잃고 만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불신을 인간의 본능으로 해석하는 작품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 역시 인간 본능으로서의 불신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다. 아내를 믿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을 하다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오셀로의 불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나왔다. 불신은

인간 내면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불신은 이미 흔하다흔한 일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태는 불꽃처럼 떠오르던 우리사회의 불신 풍조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공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학력검증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신 사례는 또 있다.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예요'라고 발뺌을 하다 실제로 밝혀지는 연예인 스캔들이나 '우리 너무 행복해요'를 외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유명인 부부의 사례는 더 이상 신기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다. 못 믿을 정치인들의 부패와 연루된 스캔들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심해지면 강박적인 정신병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못 믿는 현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외적인 사회현상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감안하면 요즘 들어 서로 믿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신뢰와 믿음은 우주로 날아간걸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당연히 아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 그냥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사람들은 유리 가면을 착용하고 있다. 자신의 진짜 표정은 숨기고, 어울림을 융통성이라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차가운 유리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자기 자신이나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못 믿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되다 보니 진심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속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들어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가슴, 세상을 아름답다고 하고, 믿음이 넘친다는 말은 정말 먼 우주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일까?

글 | 차승정 생활칼럼니스트

내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삶을 살아가다보면 우리는 인연 또는 악연을 만나게 된다.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악연인 경우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사람이 인연일 수도 있다. 전생에 억만 번을 스쳐야 이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할 만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듯 소중한 인연을 만나 평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평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바로 그것이다. 전생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맺었기에 이생에서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일까. 내가 만난 인연 중 가장 소중한 인연인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 임숙 생활칼럼니스트



일생 한번뿐인 인연, 바로 당신

'동반자'라는 말은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사람이겠죠. 20여 년 전 제 옆에 등장한 소중한 한 사람이 바로 제 일생 한번뿐인 인연입니다. 20여 년 고생하느라 작고 여러기만 한 사람이 이제 역척이쥬미가 다 되었네요. 그 결과일까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단 집을 장만하던 날, 우리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우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자고요.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다 나이를 먹어버린 사랑하는 제 아내. 못난 나에게 함께 평생을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김현철

할아버지가 된 돌비아, 사랑한다

한창 사춘기를 보내던 7년 전 저에게 어느 날 부모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외아들이라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에게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형제가 생긴 듯 저는 강아지 '돌비'와 함께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돌비를 문 밖에서 재워야 했는데 엄마 몰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자다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친구로 형제로 함께 지낸 돌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누워만 있네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면 잘 들지도 못하고 딱딱한 것을 주면 잘 씹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돌비지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돌비가 죽을 때까지 제가 돌봐줄 겁니다. 이정도면 제 동반자로 충분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성혁진

나를 변화시킨 친구, 지현아!

저에게 국민학교였던 시절, 소심한 성격 때문에 소위 '왕따'를 당하던 저였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웠고 발표나 책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할 일이라도 있으면 더듬거려 친구들의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자 4학년 때 가입한 걸 스카우트에서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안녕? 나 같은 조인데 같이 가자"라는 말로 친구감있게 다가온 지현이. 그 후로 우리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 뿐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먼저 끝난 사람이 서로의 반 앞에서 기다렸다 같이 가기도 했죠. 친구는 서로 닮는다고 했던가요? 지현이의 활발한 성격을 닮아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친구가 저를 보면 알아보지 못할 만큼 활가닥이 되었습니다. 여중을 거쳐 여고까지 함께 한 우리. 하지만 대학교는 같은 곳으로 가지 못했고 지현이는 동시통역사의 꿈을 찾아 유학을 떠나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 중이라 만나지 못하니 좀 오래되었지만 항상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 이야기하고 일상을 공유하곤 합니다.

소심한 저를 변화시켜준 친구인 지현이. 누가 여자친구들 사이에는 우정이 없다 하던가요? 몇 년 후 멋지게 변해서 돌아올 지현이를 저는 지금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을 갈 친구가 될 거예요!

경기도 파평군 북면 이민정



귀를 막아야 할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다. 바위를 깨는 채석장에서는 966FL, 350L, 330CL, 330DL 등 여러 대의 캐터필라 장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곳곳에 늘어선 다양한 장비 중 단연 돋보이는 캐터필라. 울퉁불퉁한 채석장 사이를 따라 안전모를 쓴 선한 인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유)우진산업사의 이창교 대표이사.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헤인의 중부/호남지사의 김대영 과장이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인 캐터필라, 최고예요!



(유)우진산업사에서 작동 중인 캐터필라 장비

전천후 만능기업, (유)우진산업사

아직 바람 끝에 찬 기운이 남아있던 어느 날, 중부/호남지사에 출발했다. 지사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김대영 과장. 사람 좋아보이게 하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전 오늘도 가서 설명해 드릴 것이 있으니, 준비할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추우시죠?” 편안하게 건네는 말투에서 이 사람의 성실성과 배려심이 보인다.

중부/호남지사에 머문 시간은 잠시, 차편으로 완주에 위치한 (유)우진산업사에 도착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을까. 석산 특유의 소리가 들려온다. 석산을 부수는 소리 중 낮게 울리는 장비엔진 소리. 아, 캐터필라의 장비를 곧 만나겠

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유)우진산업사는 건설자재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아스콘과 석산, 래미콘 등을 생산해 연간 65억 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든든한 기업이다. 요즘은 경제환경이 어려워 고품질의 석재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진건설과 골프장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문화환경에 관심이 많아 우진문화재단까지 설립해 예술가를 돕기도 한다고. 전북에서는 아스콘 회사로는 가장 큰 역사를 자랑하며 입사하는 사원마다 15년 장기근속은 기본으로 채워 ‘한번 들어오면 뿌리를 박는다’라는 농담까지 건넨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기업이라 바로 (유)우진산업사인 것이다.

(유)우진산업사의 문을 열자마자 모든 사원들이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손을 높이 들고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은 바로 김대영 과장. 그리고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바로 (유)우진산업사의 이창교 대표이사다.

10년 넘게 이어진 신뢰

“헤인을 만나는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996년에 만나 2008년인 지금까지 왔으니... 10년이 넘었나요? 정말 시간이 빠르군요. 헤인에서 캐터필라 장비를 소개한 것이 일만 안된 것 같은데...”

캐터필라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다보니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며 웃음을 건네는 이창교 이사는 캐터필라를 '이름값 하는 장비'라고 말한다. 효율성도 높고 힘도 센 편이라 어디서든지 한 몫을 단단히 한다는 것. 타 회사의 장비와 비교할 때 크기가 작아 힘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큰 덩치의 기계들보다 월등한 작업력을 자랑하는 캐터필라의 다양한 장비들에 대해 보고받을 때마다 "아, 정말 잘 구입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캐터필라의 강력한 파워와 효율성 높은 작업을 볼 때마다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그리고 일반적인 국내 장비 판매 회사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되면 장비의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다. 잘 사용하던 장비지만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마자 장비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하지만 캐터필라의 장비를 사용하니 기사들에게 그런 불만이 사라졌다. 캐터필라의 장비 부품들은 노후장비의

부품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장비의 부품까지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헤인과 캐터필라를 계속 신뢰하는 거죠. 10년이 지난 부품 공급,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청할 때마다 전부 준비해 주시니 이게 바로 헤인과 캐터필라의 '진가'죠."

보유장비만 곧 5대, 진정한 마니아

(유)우진산업사도 처음에는 저렴한 국내장비에 시선이 갔던 것은 사실이다. 캐터필라의 장비의 최대 단점인 '높은 가격'에 캐터필라 마니아인 (유)우진산업사도 망설여진 것이 사실. 마음이 조금 흔들려 다른 국내 장비에도 눈이 갈 때마다 등장한 사람이 바로 (주)헤인의 김대영 과장이다.

"사실, 구입할 때 장비가격 따져보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가격을 들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02



03



04

01 장비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유)우진산업사 이창교 대표이사과 (주)헤인의 김대영 과장 02 모두 다 함께 파이팅! 03 (유)우진산업사의 기사와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설명하는 김대영 과장 04 채석장에서 작업중인 캐터필라 330CL 굴삭기



01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성의를 다해 캐터필라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김대영 과장 때문에 마음을 다잡곤 하죠. 이 사람, 정말 끈질기고 근성이 있는 사람이예요. 비용이 높긴 하지만 연비와 향후 얼마간 들어갈 비용까지 꼼꼼히 비교해하는 김대영 과장을 보면 '아, 역시 캐터필라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99% 타사 국내 장비로 결정했는데 김대영 과장의 열성에 반해 결국 (주)헤인에서 올 가을에 월토더를 하나 더 구입하기로 했어요. 이로서 우리 (유)우진산업사에는 캐터필라의 장비가 5대나 되는 거죠. 진정한 캐터필라 홀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함께 걸어진 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주)헤인과 함께 걸어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우진산업사는 작은 기업에서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호남을 대표하는 단단한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 기간동안 모든 공사에서 든든한 지원자로 큰 힘을 발휘해 준 캐터필라와 (주)헤인의 담당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역의 신임을 얻는 기업으로 자라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 걸어와줘서 더 이상 무엇을 당부할 게 없어요. 최고의 파트너로 항상 (유)우진산업사의 입장에서 조언해주고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해 주었거든요. 올 가을, 월토더를 하나 더 구입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잘 부탁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비는 우리보다 헤인의 김대영 과장이 더 잘 알테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진 헤인과 캐터필라, 이제 더 오랜 시간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글_목지영 | 사진_정준택



성수대교 철거현장, 삼풍백화점 철거현장 등 대규모 철거가 진행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업체가 있다. 바로 철거전문 업체로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성도건설'이다. 이 성도건설이 또다시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았다. 바로 100년이 넘은 건물로 서울 명동의 상징처럼 보이는 '(구)중국대사관 철거 프로젝트'.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이 프로젝트에 성도건설이 참여하면서 캐터필라의 철거 전용 신장비인 345 CL UHD 장비가 투입되었다. 오늘은 바로 국내 철거 전문 장비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345 CL UHD, 국내철거현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다

345 CL UHD 굴삭기, 국내 최초 도입되다

명동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뭐가 철거되는 걸까?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가보니 그 곳은 바로 '(구)중국대사관'이었다.

100년이 넘는 건물을 커다란 장비가 부수고 있었던 것. 그 장비는 바로 국내 최초로 작업현장에 투입된 초고층 건물 철거 전용 장비인 345 CL UHD(Ultra High Demolition)다. 현장에 들어서니 성도건설의 민영석 상무가 반갑게 맞는다.

“오늘은 우리 성도건설산업에도 헤인에도 특별한 날입니다. 캐터필라 345 CL UHD를 구입하기 위해 5년간 공을 들였는데 오늘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네요. 헤인과 저의 만남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뛰어다니던 길에 노란 간판의 헤인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이니 '캐터필라'라는 이름은 모르고 그저 헤인의 장비인 줄 알았죠. '노란 장비는 헤인'이라는 공식이 제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건설산업과 헤인이 만난 것은 한 5년 되었죠? 캐터필라 345 CL UH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만난 것이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캐터필라 345 CL UHD는 국내 최초로, 철거 작업 현장에 투입한 새로운 철거 전용 장비로 345 HEX base



철거현장을 바라보는 성도건설 관계자와 CAT 산업장비영업팀

machine에 UHD Front를 개발 적용한 초고층 건물 철거 전용 장비로 지금까지 철거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전통적인 작업 공구로 보다 향상된 안전성, 내구성 및 운전자 편안함을 중점으로 개발하였으며, 건물 및 구조물 해체 철거 작업의 전 공정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초고층 건물 철거 전용 장비다.

헤인과 성도건설산업 그리고 캐터필라, 총력을 기울여라

345 CL UHD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장비다보니 헤인과 성도건설산업이 계약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

렸고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건을 담당한 CAT 산업장비영업팀의 김영주 팀장과 이견복 대리 그리고 지금은 부서를 옮겼지만 성도건설산업과 계약을 체결했던 강한승 과장은 345 CL UHD 수주를 지난 5년간 수도 없이 성도건설산업 관계자를 만나며 충력을 다한 결과라고 말한다.

“345 CL UHD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장비입니다. 따라서 작업 공정과 장비사양 검토, 모델 및 Work Tool 선정, 견적, 계약 그리고, 일본 철거 현장 방문, 시운전, 운전자 교육, 출고 전 준비, 장비 운송의 과정을 통해 장비를 현장 투입 작업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하여 UHD New Product Inform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도건설산업, 캐터필라 Akashi 공장, APM 및 Work Tool 담당자, 일본 철거 현장 UHD 운전자, 당사 기술지원팀 담당자로부터

터 많은 제안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345 CL UHD 국내 도입은 헤인과 캐터필라, 그리고 성도건설산업의 모두의 노력이 하나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헤인과 캐터필라의 담당자들은 3월 6-7일 동안 중국대사관 철거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장비를 시운전했다. 시운전을 통해 장비 성능을 검증한 결과, 장비는 완벽하게 운전되었고, 최적의 작업 성능을 확인했기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담당자들을 챙기던 헤인의 김영주 팀장은 큰 문제없이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한결 화사해진 얼굴로 말한다.

“워낙 큰 프로젝트였기에 많은 긴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모든 담당자들은 하나의 팀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본 프로젝트는 새로운 철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하나의 성



01 시운전 중인 345 CL UHD 02 이번 현장에서 시운전을 함께 한 CAT 직원들과 (주)헤인의 직원들. 파이팅! 03 철거현장에 모인 성도건설 직원들이 입모아 말하는 한마디 캐터필라 & 헤인 최고 04 국내 최초로 도입된 철거전문장비인 345 CL UHD의 모습 05 도심 한가운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공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헤인의 능력과 캐터필라의 앞선 기술력 때문이 아닐까요?”

환상의 파트너가 될 듯

345 CL UHD에 대해 5년을 고민했기 때문에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해 왔습니다. 장비로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최고죠. 하지만 국내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장비를 구입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S인데 헤인의 A/S는 20년을 봐왔으니 걱정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도건설 직원으로 알 정도로 자주 오는 헤인의 이견복 대리와 김영주 팀장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해결해 줄테니까요. 장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환상의 A/S가 실시되기 때문에 헤인이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345 CL UHD,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왠지 환상의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면서 환하게 웃는 성도건설산업 민영석 상무와 헤인의 이견복 대리와 김영주 팀장. 이들의 얼굴에서 배어 나오는 미소가 바로 ‘깊은 신뢰’를 말해 준다. 철거작업을 하는 도중 기사들은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계속하여 물을 분사했다. 물 끝에 생긴 작은 무지개. 성도건설산업과 헤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글_목지영 | 사진_이용기

경남기업 황성필 대리 & (주)헤인 전상운 대리

철저한 고객관리로 돈독해진 파트너십!

해외건설현장에서 마다 북적이는 한국 기업들과 그들이 지어나가는 다양한 건물들.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커다란 실적을 올린 기업이 있으니, 바로 '경남기업'이다. 경남기업이 해외건설공사에서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바로 든든한 지원자인 (주)헤인이 있었고 경남기업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주)헤인의 전상운 대리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숨어있었다.

사람 좋은 미소가 많은 두 사람

유난히 추운 2월의 어느 날, 서울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을 찾았다. 경남기업은 축적된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건축, 토목 플랜트, 전기, 문화재 보수, 개발형 사업, 터키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설기술과 사공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과시한 건설기업이다. 한창 제 2의 도약기를 맞은 경남기업은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테이블마다 회의를 하느라 바쁜 접견실에서 경남기업의 해외공사부 황성필 대리를 기다렸다. 기다린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이구~ 미안합니다. 급한 회의 때문에... 전대리님 오셨어요?” 오자마자 얼굴 가득 미안함을 가진 채 전상운 대리와 인사를 나누는 황성필 대리. “정말 바쁘시죠?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는 잘 되시죠?”라고 근황을 묻는 전상운 대리. 이들 얼굴에 사람 좋은 미소가 번져나간다. 이 두 사람, 왠지 닮았다.



경남기업과 (주)헤인을 지탱하는 두 사람!

한번 돌아선 고객마음 돌리기 쉽지 않다

경남기업은 (주)헤인의 오랜 고객이었다. 오랜 시간 서로 신뢰를 쌓았던 기업이었으나 2000년 경 이후로 서로 거래가 없었다. 경남기업이 관련 업무를 접은 것이 아니었으니 그 이유는 CRM(철저한 고객관리)이 안되었던 것이다.

서로 소원히 지낸 지 6년. 2006년 경남기업 해외공사부 담당자로 황성필 대리가 입사하게 되었다.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황성필 대리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접촉하던 중 (주)헤인에도 전화를 했다.

“어느 부서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말이 “직접 오셔서 필요한 것 찾아가세요.” 였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업을 기반이 된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지금 생각해도 황당해요. 그래서 다시는 (주)헤인과 거래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죠.”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후 (주)헤인의 장비사업본부장과 타 업체 직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경남기업에 대한 주제가 화두에 올랐다. 그러던 중 관련 이야기를 전했고 이 황당한 사건을 전해들은 장비사업본부장은 황성필 대리와 만남을 조심스레 부탁했다.

“솔직히 황당한 마음이 가지지 않았지만 만나보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시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그제 사람이잖아요? 그 후 전상운 대리가 저를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간적으로 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주)헤인이 보유한 다양한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곤 했죠. 전상운 대리와 오래 만날 수록 (주)헤인에 대한 제 첫인상이 ‘아~ (주)헤인을 믿어도 되겠구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일년 반이나 지났네요.”



현재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현장



대우건설 홍종락 과장 & (주)혜인 김진수 대리

최고의 장비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파트너!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건물을 짓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건설능력을 인정 받은 것. 그 중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을 손꼽는다면 바로 '대우건설'이다. 많은 건설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우건설 뒤에는 바로 (주)혜인의 열정과 노력이 서려있다.

재시작을 기회로 만든 (주)혜인과 경남기업

사건이 종료된 지 일년 반, 현재 경남기업 해외공사부와 (주)혜인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정도에서 벗어나 2006년에서 지금까지 경남기업 에티오피아 및 마다카스카르 현장에 장비를 무려 63대나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쾌거를 이루기 까지 전상운 대리의 물샐 틈 없는 업무지원이 뒷받침된 것은 기본이고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현재 다시는 깨지지 않는 신뢰를 만들어냈다.

“물론 처음보다 더 힘든 ‘재시작’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믿음과 지원을 통해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는 (주)혜인의 역사상 단일판매(장비)로서는 최대의 금액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젠 경남기업과 (주)혜인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장비의 적기공급과 사후관리, 그리고 맞춤형 제품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남기업의 성공적 해외공사를 가능케 한 (주)혜인의 슬

루션이 없다면 경남기업 해외공사부의 해외 프로젝트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CRM은 ‘모든 것은 고객 입장에서’

경남기업과의 경우를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뢰를 깨뜨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에는 첫시작보다 몇 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상운 대리의 ‘고객과의 관계를 사람 대 사람으로 설정하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신뢰와 지원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단단히 굳어진 경남기업 해외공사부 황성필 대리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이르렀다. CRM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전화응대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CRM이다.

CRM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돌려놓고 단단히 사로잡은 전상운 대리님과 전상운 대리의 마음과 노력에 신뢰로 화답한 경남기업의 황성필 대리. 두 사람의 단단한 신뢰 덕분에, (주)혜인과 경남기업과의 신뢰도는 이상 무!

글_목지영 | 사진_정준택



중장비 뿐 아니라 해상엔진까지

서울역을 마주보고 서 있는 대우건설 건물. 1층에 자리한 푸르지오 카페에 한 남자가 앉아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주)혜인의 CAT 장비판매 및 해외프로젝트 담당인 김진수 대리다. 로비를 울리는 구두소리가 들렸다. 푸르지오 카페에 등장한 또 다른 남자. 김진수 대리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바로 대우건설의 외주구매본부 중기팀의 홍종락 과장이다.

“대우건설과 만난 건 2001년이 시작이었죠? 2001년과 2002년 팔라우 도로공사 현장에 D4CIII 6대, D4G 3대, D6R 2대 등 총 11대의 불도저를 공급한 것이 (주)혜인과 대우건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7여 년 동안 꾸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리비아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D9R(50톤)급 불도저 납품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달에 미국 공장에서 출고되어 리비아 현지에 도착될 예정입니다. 다홍과장님 덕분이죠.”

대우건설에 (주)혜인이 수주한 것은 불도저뿐만이 아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발전소, 가스 플랜트, 파이



프라인 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해상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 (주)해인의 해상엔진은 PUSH BOAT에 장착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였으며 현재 여러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최고' 라는 평을 들으면서 말이다.

최고의 대우건설을 위해 기울이는 (주)해인의 노력

전 세계의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의 특성상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대우건설에 걸맞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해인의 김진수 대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사양을 파악해서 추천하고 경쟁사와 비교우위에 있는 CAT 장비의 VALUE를 끊임 없이 설명하고, CAT의 GLOBAL NETWORK를 통한 완벽하고 원활한 Product Support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CAT 장비의 뛰어난 내구성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이슈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담당자도 항상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해외프로젝트라는 특수상황에서 고객이 장비를 해외, 특히 오지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장비 가동을 이룰 수 있는 장비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영업사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꾸준한 노력이다. 하지만 해인과 대우건설 사이에도 약간의 틈이 있었다. 2002년 계약 이후 잠시 관계가 소원했던 것. 하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기업인 대우건설은 해인 측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상대였다. 대우건설에 드나들었던 해인의 영업사원만 해도 여러 명. 잠시 소원해졌던 시

기가 지나고 2007년 D9R(50톤급) 불도저 1대를 리비아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납품계약을 맺으며 (주)해인과 대우건설의 관계는 다시 돈독해졌다.

“건설현장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오일머니로 인해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장비 수요 급등에 따른 장비 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적시에 장비를 공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해인이 우리 대우건설의 파트너가 되어서 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진수 대리님이 워낙 잘 챙겨주시거든요.”

김진수 대리 때문에 (주)해인이 더 신뢰가 간다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해인의 김진수 대리님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계셔서 제가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귀찮게 해드리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곤 하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김진수 대리님이 든든한 만큼 해인에도 많은 신뢰가 갑니다.

캐터필러 장비의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믿을 수 있는 성능으로 공급하며, 고장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만, 납기가 길고 금액이 높은 것이 선뜻 선택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장비를 받아 현장에서 사용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곤 합니다. 장비 중 최고는 바로 캐터필러니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명성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맨으로서 가장 힘이 날 때는 바로 나로 인해 고객의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앞으로 더 커질 대우건설, 그 현장에 당당한 동반자로 나란히 서 있을 (주)해인의 모습을 그려보자. 웬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글_ 목지영 | 사진_ 정준택

한반도대운하, 제대로 알기

요즘 언론매체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은 찬반논쟁으로 그 열기가 뜨겁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제 1 공약이자, 전 국토의 구조를 바꾸는 장대한 국가계획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 그리고 운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운하 건설의 간략한 개요 및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물동량을 위한 새로운 대안, 대운하

자연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뱃길을 여는 한반도 대운하의 축은 경부운하라고 말할 수 있다. 경부운하는 한강수계의 팔당댐을 통과하고 충주댐을 우회하여 조령산맥을 거쳐 낙동강에 연결되며, 자연하천 500km, 인공수로(터널26km 포함)등 총 연장 540km에 달하며, 주운보 13개소 및 갑문 12개소(리프트 2개소 별도), 주운용수댐 1개소 등을 포함한다. 호남운하는 영산강 하구-광주구간, 충청운하는 금강 하구-오송구간이 포함

되어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는 다가오는 물류대란에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2020년에는 물동량이 지금의 2배(20억톤), 컨테이너는 3배(4천7백만 TEU)나 증가하게 되고, 현재 도로 수송 점유율은 90.35%로 경부축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다. 이제 우리는 넘쳐나는 물동량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운하가 매우 적합하다. 운하는 2500톤급 한 척에 트럭 150대분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고, 선박수송비는 육로의1/3~1/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철도와 도로운송에 비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1/5로 매우 낮아 친환경적 수송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친환경적 운하, 맑은 물이 흐른다

친환경적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일정수심 확보를 위해 기존하천의 저수로 일부를 준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하천바닥에 과도하게 퇴적된 오염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하천수질이 개선된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퇴적된 오염토사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되던 중금속과 미량



유해물질의 발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준설로 깊어진 수심과 주운보의 건설은 한강과 낙동강의 물 저장능력을 현재 7억 톤에서 17억톤 규모로 2.5배 정도 증가시켜 연중 수량을 풍부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다. 운하건설로 저수량이 보다 높아진 충주댐과 안동댐 등의 맑은 물 공급은 하천의 수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지역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이 될 것

마지막으로, 한반도 대운하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게 되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물길이 통과하는 내륙도시에는 항구가 생기고, 이로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약 30만 명)의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운하 주변에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여

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레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운하는 지역적,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하는 한물간 운송수단이라고 말하나, 현 유럽에서는 운하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으로 새로이 주목하고 있으며, Marco Polo와 NAIADES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미래는 물과 관광의 시대라고 한다. 이제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국민소득 4만 of 경제대국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_구은경 연구원/한반도대운하연구회



캐터필라 중형 소선회 굴삭기 328D L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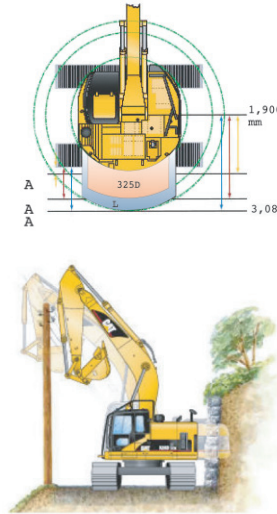
중형굴삭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캐터필라 중형 소선회 굴삭기 328D LCR.

328D LCR은 빠른 작업동작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주)헤인에서 아심차게 선보인 중형 소선회 굴삭기 캐터필라 328D LCR.

이 장비는 소형 굴삭기의 전유물이었던 소선회의 개념을 중형 굴삭기에 도입함으로써 장비의 상부가 하부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작은 후방 선회 반경을 갖춰 도심지 내에 협소한 공간과 도로 보수공사, 터널 공사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굴착력 및 복합 작업을 요구하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운전자가 좁은 작업 현장에서 선회시 후방의 장애물 간섭 및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작업 효율 또한 증대시켜 주도록 제작되었다. (주)헤인에서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328D LCR 장비에 대한 런칭을 시작하였으며 3월부터 약 한달간 아파트 부지, 철거 지역, 석축 공사 현장, 도로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진행한 데모 일정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특징

◎ 짧아진 선회반경

동급 굴삭기 대비 약 1500~1600 mm 감소

◎ 협소한 공간에서도 최고의 생산성

작업 공간 제약이 있는 30톤급 중형 굴삭기의 약점 극복
협소한 도심지, 지하철 공사현장, 지하 터파기, 철거지역 등 다양한 작업현장 적용

◎ 대형 카운터웨이트

동급 굴삭기 대비 뛰어난 인양 능력과 안정성

◎ 최적의 운전석 | 탁월한 시야 확보, 인체공학적 설계

◎ 친환경 엔진

전세계 배출가스 기준 Tier III를 충족시킨

저연비 · 저소음 · 고출력 CAT ACERT C7 엔진 탑재

◎ 전자동식 유압 시스템 | 뛰어난 유압 조정

제원표

항목	단위	
운전중량	kg	34,600
버킷용량(SAE)	CUM	0.5~2.3
엔진	제조사, 모델	CATC7
	정격출력	hp 204
	@회전수	rpm 1,800
유압	펌프개수/ 용량	ITR/MIN 2 × 235
작업범위	최대굴삭반경(지면)	10,560
	최대굴삭깊이	mm 6,920
	최대굴삭높이	11,110
	최대덤프높이	8,040
성능	스윙속도	rpm 10.2
	스윙토크	kN,m 82.2
	굴삭력, 버킷(ISO)	ton 18.8
	굴삭력, 스틱(ISO)	ton 12.8
	주행속도(저/고)	kn/h 4.2
	견인능력	kg 30,581
운송제원	천장	9,820
	전폭	3,190
	전고(Cab)	mm 3,190
	전고(Boom)	3,370
	후단선회반경	1,900
하부	트랙총길이	5,202
	텀블러 중심간 거리	4,040
	트랙게이지	mm 2,590
	최저지상고	510
	슈폭	600/700/850
연료탱크용량	liter	406

중장비업계의 필수! 중장비 안전 보험

하루종일 좁은 장비 안에서 지내는 중장비 기사들에게 기사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필수다. 하지만 작업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 하지만 내 안전은 내가 챙겨야 한다. 중장비기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장비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중장비 안전 보험이란?

보험의 목적물을 중장비로 특화한 보험으로 작업 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담보해 주는 전위험담보 보험을 말한다. 기존의 동신종합, 조립,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위험을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하던 것에 비해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선택하여 담보 가능한 패키지 보험이라 보면 된다. 중장비 안전보험의 특징은 담보위험 및 보험 계약의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단일 보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일괄계약하실 수 있다. 단, 재물 손해 담보는 필수. 중도가입(해지)장비의 경우 서면 통지만으로 자동 가입(해지)되며 타워 크레인의 경우 월/분기/반기별 정산으로 보험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중장비에 대한 기존보험에 비해 풍수재 위험을 기본담보로 보상하는 등 확대된 담보 범위를 제공한다.

● 가입대상

- * 건설업체
- *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사업자
- * 건설기계 대여업자
- * 중장비를 소유한 기타사업자
- * 렌탈 및 리스사업자

Ex) 볼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캐리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

설기계 등 타워크레인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6종 건설기계는 제외됨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 보상하는 손해

담보	구분	내용
재물손해담보	기본	중장비의 운행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 풍수재 사고 포함)
	특약	수리위험 담보: 수리, 청소 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결렬로 생긴 손해
		전기적 사고 담보: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전기적 사고에 의한 손해
		기계적 사고 담보: 기계의 내적 원인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지하작업기계, 장비담보: 사태, 지반침하 및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대위권포기: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립
조립위험담보	선택	조립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조립작업의 결함, 종업원 또는 제 3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화재, 파열 또는 폭발, 도난, 폭풍우, 홍수, 벼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약	제작자 결함담보: 목적물의 설계, 구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
배상책임담보	선택	중장비를 통한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약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담보: 중장비의 용도에 따라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등
상해담보	선택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약	24시간 담보: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
		휴업보상금 담보: 상해로 인한 휴업보상금

● 가입방식

- 가입업체별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 전체를 일괄부보
- 중도가입(또는 해지)장비 또는 새로운 조립·해체작업의 경우 서면통지만으로 자동가입(또는 해지)
- 1계약당 최소 부보 대수는 3대 이상

● 계약 시 필요사항

1. 보험 가입설문서
2. 중기등록증 | 중기등록증이 없는 중장비의 경우 장비의 고유번호 리스트 제출
3. 중장비리스트 | 장비명,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장비형식, 주요사용용도 및 장소
4. 담보내용 | 재물손해담보, 조립위험담보, 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에서 선택하여 통지



헤인 들여다보기

2008년 시무식 거행



당사는 지난 1월 2일 본사 및 전 자사/사무소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최고 경영자인 손규식 회장 / 원경희 사장은 시무사를 통하여 고성과 창출 문화의 중요성 및 CRM을 통한 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및 육성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으며, 모든 직원들은 새해 도약을 위한 힘찬 결의를 다졌다.

캐터필라 6 시그마 행사 'President's Award' 수상 소식



캐터필라사에서는 매년 6 시그마 장려를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6 시그마 프로젝트에 대한 수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거행된 2007 President's Awards에서 헤인 최초로 Best Customer Service 와

Most Replicable Project 등 2가지 상을 수상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고객지원본부의 Develop Delivery Manual로써 6 sigma팀 송선미 팀장이 프로젝트 진행/발표를 담당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차길환 전무(Project Sponsor)는 헤인에서 실시한 'Best Project Sponsor' 상을 수여 받고 이번 계기로 헤인의 6 시그마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Process Owner인 안민홍 부장, GB 김광수 과장, 이주일 과장, 조성훈 대리, 최진우 대리, 박지수 사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쾌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16개 캐터필라 딜러가 참가한 행사에서 헤인의 프로젝트가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 받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주)헤인 캐터필라사로부터 오염관리 5Star 등급 수여



(주)헤인 고객지원본부는 지난 2007년 11월 16일 캐터필라사로부터 오염관리 5Star 등급을 인정 받았다. (캐터필라사는 대부분의 건설기계 고장원인인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엄격한 오염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Star ~ 5Star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오염관리 4Star 등급을 인정 받은 후 5년 만에 이루어낸 오염관리 5Star 등급은 전세계 캐터필라 총 1,089 딜러 중 22% 만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총 135 딜러 중 3.7% 만이 인정 받은 경이적인 일이다. (주)헤인 고객지원본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오염관리를 통하여 캐터필라 장비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캐터필라 345CL UHD 장비 중국 대사관 철거



지난 3월 4일, 중국 대사관 재건축을 위한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번 철거 작업 수행의 주인공은 (주)헤인에서 성도건설산업(주)에 공급한 캐터필라 345 CL UHD 장비. 345 CL UHD 장비는 초고층 건물 및 구조물 해체 및 철거 전용 장비이다.

성도건설산업(주)는 대규모 철거 작업을 주도해온 철거 전문 업체로 이번 중국 대사관 철거 프로젝트를 맡으며 국내 최초로 UHD 장비를 철거 현장에 투입시켰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 12~15p를 참고하면 된다.

DSME (대우조선해양)와 석유시추선 엔진공급 계약 체결



지난 2007년 12월, (주)헤인 파워시스템 사업본부 MNP (Marine & Petroleum) 팀은 DSME (대우조선해양)와 멕시코 Petroleum 프로젝트의 석유시추선 엔진 3616 엔진 8대 납품 계약을 1,457만 불에 체결했다.

이번 쾌거는 지난 2006년 3월 SK 프로젝트(1,530만 불)에 이어 헤인 역사상 2번째로 큰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그간 MNP팀의 Petroleum Sales 파트 직원들의 2년여 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난 2007년 6월 Power System Day (엔진 고객 초청 행사)시 DSME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로 직원들을 천안공장에 파견토록 하여 (주)헤인의 프로젝트 설계 및 수행 능력을 직접 확인했던 결과로서, 향후 잇따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수주 금액의 기록 경신도 기대된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프로젝트 관련 공로 부서 및 공로자 표창식



지난 2007년 11월 21일, SK건설에서 주관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납품용 발전기 3600 시리즈 8대 전량을 2007년 1월 ~ 11월까지 설치 조립 및 공장인증 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주)헤인 천안고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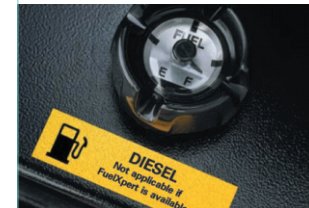
비스센터에서 파워시스템사업본부 ESE (Energy Sales Engineering)팀 및 고객지원본부 엔진서비스팀에 대한 회사 표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SK 건설 감독관 및 당사 협력사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파워시스템 사업본부/ESE 팀 최명석 대리 논문 발표

지난 2007년 11월, ESE팀 최명석 대리는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 추계학술대회에 Caterpillar 발전기의 우수한 성능을 이용한 비상용 발전설비의 침투부하 식감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논문을 출품하였으며, 학계로부터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논문의 주제 및 연구 방향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및 발전 설비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 최명석 대리는 본부장님과 논문 작성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ESE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오는 2008년 2월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아트라스콥코 콤푸레샤 연료 절감 장치 (FuelXpert) 장착



아트라스콥코 콤푸레샤 정식 딜러인 (주)헤인은 취급하는 콤푸레샤 전 모델에 연료 절감 장치(FuelXpert)를 기본 장착하였다. FuelXpert는 하드웨어와 아트라스콥코만의 독점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연료 절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 경쟁사 대비 평균 10%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 발휘가 가능한 장치로서 매우 경제적이며 국제적 유가 상승에 크게 부합하는 장치이다.

천안공장 자체 소음도 검사 시설 인증



2008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소음 표시 의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헤인 천안 고객서비스 센터에서는 자체 소음도 검사 시설 인증을 완료하여 헤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 당사 시설에서 소음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입 건설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중 최초로 시설 및 인력을 구비한 것으로 신모델 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소음 인증을 보다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소음 측정 결과치를 바탕으로 운전자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저소음 건설 기계 국내 보급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 과정 실시

3톤 미만(지게차,굴삭기)	
교육기간	1박2일 12시간
교육시간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
교육비용	200,000원(VAT별도) 교재 및 중식 제공(숙박비 제외)
5톤 미만(로우더)	
교육기간	2박3일 24시간
교육시간	8시간 실습교육 16시간
교육비용	300,000원(VAT별도)
공통사항	
교육정원	최대 20명
교육주기	2월, 5월, 8월, 11월 둘째주 (교육정원 5명 이상)
교육내용	이론교육, 실습교육 (일상점검, 조종교육, 안전교육)

(주)헤인 고객지원본부 / 기술지원팀에서는 2008년 5월, 8월, 11월에 걸쳐 소형 건설기계 면허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주)헤인 기술지원팀 이 우 사원 Tel. 041)559-1545 E-mail. wlee@haein.com



환절기 건강 주의보, 심혈관계 질환

요즘처럼 온도 차이가 심한 환절기에는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왔으나 심장 마비로 세상을 달리 했다는 TV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중년 남성들, 특히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 고혈압, 고령 환자라면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급작스런 기온 저하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기존에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환자라면 혈압이 상승으로 인해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 동맥에 순환 혈액이 감소하여 협심증을 유발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급성 심근 경색으로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혈압 환자 중 고령 일수록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기온 차에 따른 혈압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위험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병원을 찾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

특히 춥고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겨울에 날 야외 외출이나 운동 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 개의 옷을 끼어 입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거나 스카프를 둘러서 머리를 통한 열손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감기가 걸렸다고 감기약을 약국에서 함부로 복용하게 되면 감기약 성분 중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혈압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주치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TIP. 심혈관계 증상에 따른 자가 진단방법과 대처법

- | | |
|---------------------|---|
| 1. 가슴이 아프다 |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아프다면 협심증(狹心症)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운동 시 심장 혈관에 혈액공급이 원활 하게 되어야 하는 데 혈관이 좁아져서 충분한 혈액공급이 안될 때 가슴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2. 숨이 차다 | 심장병의 경우 호흡곤란, 즉 숨이 차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심장기능의 저하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지 못할 때 피가 정체되고 이로 인해 폐를 통한 산소의 공급이 저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평소 조금만 활동을 해도 숨이 찬 증세가 나타난다면 심장병중 심부전(心不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진찰이 필요합니다. |
| 3. 가슴이 두근거린다 | 가슴이 뛰는 증상은 심장 박동의 불쾌한 느낌을 말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격렬한 움직임이나 진한 감동, 또는 정신적인 자극이 있을 때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운동이나 약간의 심적 불안으로도 가슴이 고르지 않게 뛰거나 고르게 뛰더라도 1분에 대략 150번 이상을 뛸 때는 심장병중 부정맥(不整脈)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독자 나눔터

●● 골프장에도 스키드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종사보다 헤인 제품이 작업 수리에서 월등히 뛰어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황환민** 님

●● 약 15년 전에 석산 근무 중 헤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책자를 보내주셔서 헤인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시회나 행사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전남 순천시 조례동 **서명석** 님

●● 한국 중장비의 역사 헤인. 중장비 수리의 효시인 안양 석수동 공장이 천안으로 이전한지도 십수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변한 공장터를 바라보며, 눈 치우며 중장비를 정비하던 그 시절이 그리웁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헤인을 바라보며 그 시절 동료들이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강희경** 님

●● 오래 전부터 장비를 다뤄왔으나 캐터필러만큼 좋은 장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서 구입하기가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헤인 직원들 모두 수고하시고 나날이 변창하는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시 명천동 **문희철** 님

●● 신랑이 헤인 로더 팬이라 저도 알게 되었답니다. 로더 안에서 운전하는 신랑을 보면 언제나 자랑스러워요. 더욱 더 발전하는 헤인이 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인 파이팅!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윤여선** 님



▲ CAT시계 · 만보기/벨트세트

사보에 대한 소감을 옆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사보 <헤인> 다음 호 독자 나눔터에 사연을 게재해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서울경기지사	사원	김상진
중부호남지사	사원	김정화

●● 자녀출생을 축하합니다

고객지원본부/기술지원팀	사원	이우
고객지원본부/장비파트	사원	이원근
고객지원본부/엔진서비스팀	과장	신병식
파워시스템사업본부/MNP팀	과장	하계수
동부지사/제천사무소	대리	박우양
마케팅사업본부/CRM팀	대리	이천재
파워시스템사업본부/ESE팀	대리	최명석

●● 승격을 축하합니다

파워시스템사업본부	이사	정순택
경영지원본부/금융무역팀	수석부장	원종수
장비사업본부/Allied장비팀	부장	고홍길
중부호남지사	부장	김인기
동부지사	부장	장병학
파워시스템사업본부/EPST팀	차장	김형태

영남지사	차장	조영록
영남지사/대구사무소	차장	류광숙
6시그마팀	과장	고종욱
장비사업본부/Allied장비팀	과장	윤준호
파워시스템사업본부/MNP팀	과장	최문규
경영지원본부/경영지원팀	과장	김태용
영남지사	과장	손창배
영남지사/대구사무소	과장	김영수
동부지사/제천사무소	과장	박우양
서울경기지사	과장	김흥기
고객지원본부/엔진서비스팀	대리	김보경
고객지원본부/기술지원팀	대리	이우
고객지원본부/기술지원팀	대리	정상현
고객지원본부/기술서비스팀	대리	이재유
고객지원본부/기술서비스팀	대리	황상순
영남지사	대리	안성환
동부지사	대리	장건우

●● 입사를 축하합니다

영남지사	사원	곽부철
마케팅사업본부/CRM팀	사원	현미숙
중부호남지사/대전사무소	사원	정경선
중부호남지사/광주사무소	사원	박자이

지난호 퀴즈 정답

1	9	7
2	4	8
3	6	5

우 편 업 서

보 내 는 사 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07.7.15~2009.7.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애 독 자 카 드

● 위의 그림을 아래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3

● 독자 나눔터에 실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정성스러운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 및 신규구독, 주소변경을 원하시는 독자는 전화 및 E-Mail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3498-4634 / E-Mail : jyoon@haein.com

※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래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시오.

☐ 신규 구독 신청 ☐ 주소 변경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소변경시 전 주소도 기입 요망)

1 3 7 - 1 3 0

※ e-mail로도 사연을 받습니다.(jyoon@haein.com)